

니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서울 안암동 보타사에 딸린 5층짜리 건물의 한층을 얻어 쓰고 있다. 방문을 두드렸을 때 스님은 TV를 보고 있었다. 김석철씨의 건축특강. 책상 위에는 <생각의 탄생>이 얹어져 있었다. “그래 왔나. 허리 수술하고 입식으로 씩 바꿨다. 앉으래. 뭐 마실래?”

기자를 맞이하는 인사와 당신의 근황을 앞뒤 없이 삼시간에 풀어놓았다.

“중문과 답사팀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잊고져 왔다.”

이번에도 뜬금없다. 10여 년 전부터 연세대 중문과 이규갑 교수가 모임을 짜 1년에 한 차례 중국을 답사하는데, 거기에 함께 다녀왔다는 얘기다. 답사팀은 매년 ‘한자’ ‘지필묵’ ‘집’ 등의 주제를 정해 10일 쯤의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한다. 이번에는 ‘소수민족’을 주제로 중국 남서부의 구이저우(貴州) 일대를 둘러보았다. 이규갑 교수는 임동석 건국대 교수, 강해근 충남대 교수, 김병기 공주대 교수 등과 함께 1993년부터 대장경 전산화의 이체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 오랜 인연이다.

허리가 아파 지난해 12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종림 스님은 그새 동해와 서해를 건너 1월에는 일본, 2월에는 중국을 다녀왔다. 아픈 허리를 공공대면서도 미뤄놓을 수 없는 일들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40년 넘도록 매달려온 고려대장경 전산화!

일본을 다녀온 이유는, 남산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 1800여 권의 디지털화 마치고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6년간의 작업이었다. 이로써 초조대장경과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의 비교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 경전의 집합과 분류, 초조에서 재조로 이어지는 과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전산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오래 된 것의 현재화, 그래서 지금 또는 미래의 쓸모에 가까운 것일까.

“문화재는 지난 문화 활동의 산물이다. 이런 물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게 하는 것이 문화재가 가진 가치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취지는 그것이 문화의 종(種)이라는 데 있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종으로 작용할 때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종림잡설-망량의 노래>에서 따옴)

그는 18번째 대장경 전산화 일을 하고 있다. “자아의 벽을 깨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산화란 정보가 오히려 자아의 성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괴물을 만들어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찾고, 불교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법론이 분명 경전 속에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 내보자는 막연함 혹은 욕심이 그를 대장경 속에 빠

구소라는 간판을 걸었다. 1993년이였다. 그런데 일이 엄청 커져버렸다.

“내가 이런 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험령하게 살아야 종립다운데, 나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를 넘기지 않으려 했다.”

그는 아나키스트다. 목적 또는 목표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학적 아나키스트임이 분명하다. 그를 출가로 이끈 요인이다. 누구나 그러했듯 그도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유토피아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이며,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유토피아 사상이 지난 전체주의 성향은 으레 독재체제나 닫힌 사회를 낳고 만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사회의 구조와 질서 또는 정치체제의 변혁으로 인간과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역사에 비추어보건대, 정치적 이상만을 남긴 채 인간 존재를 구원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 같다.”(망량의 노래)

한때 초탈에도 매료됐지만, 안식처가 아니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족을 추구하는 만큼이나 사회윤리의 실천이 불가피한 존재다. 이런 바탕 위에서 초탈의 철학은 이상과 실천의 괴리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했다. 불교에서 길을 찾으려는 뜻이었다. 1972년, 애초의

출가 사상은 월정사였다. 그런데 그에게 맞는 공부할 하는 데가 아니어서 해인사로 갔다. 총무원장을 지냈던 지관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것도 어쩌어쩌하다가 그리 됐다. 아직 제 받을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근이란 스님이 “같이 제 받자” 해서 도반 따라 느닷없이 제를 받았다. 그로부터 어느덧 38년이 흘렀다.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뒤지며 자신과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려 했다.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잡았다 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가버렸다. 끝내 연기(緣起)의 이치가 그가 도달한 지점이다.

“세상에 다 맞는 게 어딴고, 다 틀린 게 어딴나? 없다. 서로의 장점을 이어주는 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종, 대승불교, 원시불교가 있는데, 어느 것을 밀어내고 어느 것을 세울 거냐. 그러지 말고 각각의 장점을 들춰내어 이어줘야 하지 않나. 그 끈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연기로 풀어내면 나올 것도 같은데... 내 생각이다.”

이항소참(異向小參)이란 참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 다 맞는 게 어딴고, 다 틀린 게 어딴나?

자기를 위안해야...일상만 따라가지 말아라

지게 했다. 전산화는 대장경을 날리, 잘 보게 하는 수단이다. 결국 그가 가리키는 것은 대장경 속의 지혜이다.

종림 스님에게 대장경 전산화는 그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시작은 심심하고 심경이 그지없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불교를 새롭게 해보자는 논의가 많았다. 그런데 그 무렵엔 쳐다볼만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발발거리고 있었다. 일본에 가 있는 도반들이 오라고 불렀다. 일본에 1년쯤 있었는데, 국제미아들이었다. 7~8명이 강가에 모여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보냈다.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일본의 대장경 전산화하는 일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또 강가에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보자, 좋다. 하자, 그리고는 “종림이 나가 해라”로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래서 대장경 전산화 불사가 시작됐다.

돌아와서 해인사에 방 하나 얻어서 고려대장경연



종림 스님은 ...

1944년 경남 함양 출생.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졸업. 1972년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도서관장, 월간 <해인> 편집장,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대흥사 선원장, 세계전지불전협회 공동의장,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2년 고려대장경연구소 설립에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종림잡설-망량의 노래>가 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 2010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는 방대한 상담사제집,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2년제 특수교육기관으로, 불교의 기본소양과 상담심리분야의 전문능력을 두루 겸비한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불교상담대학장 담교 스님

☐ 불교상담심리사란?

불교상담심리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불교상담심리전문가, 불교상담심리사 1급, 불교상담심리사 2급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요망)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원서문의 및 접수

조계사 교육관 4층 불교상담개발원
☎ 02)737-7378, 8803 FAX 02)737-8802
www.jabi24.org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검색

* 접수마감 : 2010년 2월 말까지 *

불교상담대학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수, 목 저녁 6시 30분 ~ 9시 40분
- 모집정원 : 4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불교교리(필수)	불교역사(필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개론
2학기 불교상담(필수)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실습
3학기 경전의 이해(필수)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사이버상담실습
4학기 불교심리학(필수)	학습심리학	적응심리학	면접상담실습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2만원
- 등 록 금 : 4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교육비 할인대상

- 자비의전화 상담원, 포교사 등 종단 포교자격자 및 군법사
- 종무원, 협력단체 및 사찰 직원, 동국대 불교대학생
- 조계종단 스님 및 이사 사찰 신도
- 본원 이사사찰 수행상담실 상담원

☐ 불교상담대학 졸업특진

-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자격 부여(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최초의 전문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의 각 상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전화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청소년사이버상담실, 면접상담실)
- 시단법인 자비의전화의 법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워크숍 및 행사에 참가

불교상담대학원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 9시 30분 ~ 17시 30분까지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대승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성격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2학기 불경과 상담	자아초월심리학과 불교상담	정신역동상담 고급집단상담
3학기 유식학과 상담	수행 실천 인지행동치료	대상별 상담
4학기 명상과 심리치료	특수분야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사례발표/슈퍼비전)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1. 본 대학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 2.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 3.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교육기관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로 필수과목을 별도 이수해야 함.
- 4.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5. 타 교육기관에서 본교 개설과목 가운데 일부를 이수한 경우,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과목별 수강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3만원
- 등 록 금 : 6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불교상담대학원 졸업특진

1. 불교상담심리사 1급 응시자격 부여
2. 자격증 소지자는 심리평가 및 불교적 심리상담 가능
3.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에 관한 연구가능
4.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 내외의 상담 행정업무 가능
5.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수련중인 자에 대한 멘토링 가능